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밀도’ 택한 광주비엔날레

9월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서 개막... 호추니엔 감독 “규모 확장보다 깊이·응축”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마지막 구절에서 출발한 문장이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가 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3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제목을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시 제목은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에서 착안했다. 이 시에는 상상 속의 파편화된 고대 조각상이 등장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게 강렬한 정서적 충격을 남긴다.

이번 비엔날레는 호추니엔 예술감독과 박가희, 브라이언 쿠안 우드, 최경화 큐레이터가 함께하며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7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현재 광주비엔날레에는 50여 개 국가·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는 “광주비엔날레는 30년의 역사를 지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며

“중요한 시기에 ‘변화’를 주제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릴케의 문장에서 출발해 ‘변화’를 하나의 예술적 방법으로 바라본다. 예술가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권력 구조, 관계의 형태를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취지다.

호추니엔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규모와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통해 변화의 의미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특히 역대 가장 적은 수의 작가가 참여하는 응축된 형식을 택했다.

호추니엔 감독은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작품의 밀도에 집중하겠다”며 “여러 작가의 삶과 작업의 흐름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변화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 축적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술적 실천을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회복력의 사례로 바라보며, 개인과 공동체가 겪는 갈등과 삶의 변화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탐구한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GB 커미션 작품도 선보인다. 권병준과 박찬경은 공동체 의례에서 출발한 사운드 설치 신작 ‘불림’을 공개한다. 시민들이 기부한 금속 물건을 수집해 사운드 설치 작업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또 제클린 키오미 고코는 공기 구



조물과 다체널 사운드를 결합한 설치 작업을 선보이며, 남화연은 조선 후기 서학 수용 과정 속 여성들의 신앙과 신체적 실천을 탐구하는 작업을 발표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번 전시는 예술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세계의 방향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구민 선호도 투표

광주 동구는 ‘2026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구민 선호도 투표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책’ 사업은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함께 고른 도서를 중심으로 구민 도서 지원, 작가와의 만남, 독서 공모전, 독서토론폰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독서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동구는 올해 1월 독서 전문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의 책’ 후보 도서를 공모해 총 365권의 도서를 접수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서선정단 회의를 통해 최종 4개 부문 20권(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 각 5권)의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후보도서는 유아 부문 ▲‘특별주문 케이크’(박지윤), ▲‘수탉과 아기 새’(지현경), ▲내 ‘배아리’(정현정), ▲‘괴물이 어떤’(안정은), ▲‘봄이 들면’(김영화), 어린이 부문 ▲‘폰드르메다 별에서 오는 텔레파시’(문봉), ▲‘컵라면은 절대로 불어선 안돼’(김지완), ▲‘이루의 세상’(정성아), ▲‘토끼와 거북이의 마지막 대결’(박현민), ▲‘멋진 민주 단어’(서현, 소복이, 한성민), 청소년 부문 ▲‘파이트’(이아라), ▲‘나에



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김종원), ▲‘유자는 없어’(김지현), ▲‘진밀한 가해자’(손현주), ▲‘소란한 비밀’(강은지), 성인 부문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홍성수) ▲과학산문(김상욱·심재경) ▲노 피플 존(정이현) ▲봄밤의 모든 것(백수민) ▲아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공현진) 등이 선정됐다.

구민 선호도 투표는 네이버폼 설문 링크(naver.me/5bCP7snr) 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동구 누리집과 구립도서관 책정원, 동구 모바일 앱 ‘두드림’에 게시된 안내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전혜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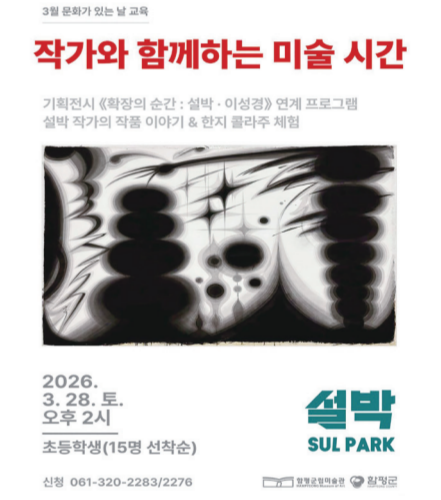
함평군립미술관,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인기’

전남 함평군 함평군립미술관이 기획전 참여 작가와 미술 활동을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함평군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기획전시 《확장의 순간: 설박·이성경》출품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인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 시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 참여 작가들의 실제 작업 재료와 표현 방식을 활용하는 체험형 미술 교육으로 마련됐다. 함평군립미술관은 교육 참여자들이 전시 관람과 창작 활동을 함께 경험하며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업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앞서 함평군립미술관은 지난달 28일 전시 참여 작가인 이성경 작가와 함께하는 목탄 그리기 수업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작가의 설명이 있는 전시장 관람을 통해 작품과 작업 방식을 살펴보고, 목탄의 표현 방식을 이해한 뒤 직접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목탄



특유의 질감과 명암 표현을 활용하며 자유로운 선과 면을 표현하는 경험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손이 새까맣지만, 마음껏 선을 그리고 지우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일제강점기 속 나주... 번역으로 드러난 100년 전 풍경

나주문화원이 일제강점기 초 나주 지역의 모습을 담은 기록을 번역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나주문화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기록한 나주 관련 문헌을 우리말로 번역해 엮은 ‘20세기 초 나주의 모습’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20세기 초 나주·영산포·남평 지역의 사회·경제·도시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모은 것으로, 나주시 지원을 받아 일본 자료를 추적해 확보한 7건의 문헌을 번역해 수록했다.

수록 자료는 ‘1910년 조선 전라남도 남평군 상세 일반’, ‘1913년 보고의 전남’, ‘1915년 향토 사료’, ‘1916년 영산포 발전지’, ‘1930년 전남 사정지’, ‘1933년 남평 발전사’, ‘영산포 일본인 거리의 형성’ 등이 다.

특히 1910년 작성된 ‘조선 전라남도 남

나주문화원 ‘20세기 초 나주의 모습’ 출간 남평·영산포 기록 등 근대사 자료 7건 번역

평군 상세일반’은 국권 피탈 직후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농업이민 정책 홍보를 위해 작성한 문서다. 당시 남평 지역의 연혁과 지리, 산업 상황 등을 담고 있어서 20세기 초 지역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1916년 발간된 ‘영산포 발전지’는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자료였다. 나주문화원이 2024년 일본 도서관에서 소장 사실을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책에는 영산포 신시가지 형성과 일

본인 이주 과정 등이 기록돼 있으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또 일본인 사후리 신조(佐藤伸三)가 정리한 ‘영산포 일본인 거리의 형성’은 목포 개항 이후 일본인 지주층 형성과 영산포 일본인 시가지 형성 과정을 정리한 자료로, 강점기 영산포의 도시 형성과 사회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윤영정 나주문화원장은 “자료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해 작성된 기록이지만 1910년



대부터 1930년대까지 나주의 현대사를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며 “이번 번역을 계기로 20세기 초 나주 지역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나주의 모습’은 나주문화원에서 배포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국민 내로남�만 믿어라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